

이재명, 충청서 ‘경청투어’… 김문수, ‘경선 최종후보’ 강조

이재명, ‘소통·통합, 치유·민생’ 집중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 만들 것”

김문수, 경북 영덕·포항 방문
이철우 지사에 단일화 조언 들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6일 각각 사법 리스크와 단일화 논란을 딛고 충청과 TK(대구·경북)를 방문하며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민주당은 지난 1일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한 가운데, 이재명 후보는 6일에도 ‘소통과 통합’, ‘치유와 민생’을 키워드로 충청을 찾아 2차 골목골목 경청투어에 집중했다.

이재명 후보는 충북 증평군 소재 식당에서 시민들과 만나 12·3 비상계엄에 동조하는 세력이 만든 국가적 위기를 힘을 모아 극복하자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나라가 위기다. 12월3일에 내란도 겪게 됐고, 지금 계속되고 있는 2·3차 내란시도, 내란 그 자체도 곧 국민들의 위대한 손길에 의해서 정확하게 진압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방된 나라 중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도 없



민심을 청취하는 ‘경청 투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6일 충북 보은군 화훼농원 숲길에서 분갈이 체험을 하고 있다.

고, 이렇게 빨리 성장한 나라도 없다”며 “온갖 종교들이 많이 있지만 종교 간의 싸움이 터지지 않는 나라, 세계를 이끄는 진정한 문화 선진국, 그런 대한민국이 저 한 줌도 안 되는 소수의 기득권층이 만들어 내고자하는 황당한 세상을 우리가 왜 못 이겨내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승만·박정희 정권 때 고초를 겪은 조봉암 선생과 김대중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죽은 사람도 있고, 산 사람도 있다. 그러나 우리 이번에는 반드시 살아서, 반드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자”며 “반드시 이겨서 희망이 있는 국민들이 존중받는 나라,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인정받는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을 반드시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외곽에서 이재명 후보의 항소심을 파기환송한 대법원을 비판하며 모든 공판 기일을 6·3 조기 대선 이후로 미루라고 주장했다.

윤호중 전 새한국당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이날 중앙당사에서 열린 총괄본부장단회의에서 “거듭 요청한다. 5월 12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출마 후보들에 대한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 있는 모든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뤄 달라”며 “이미 루비콘 강을 건넌 극우 내란 쿠데타 세력과 결별하기 바란다. 그것만이 다시 부끄러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6일 경북 포항시 죽도시장을 방문해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역사를 후대에 남기지 않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당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를 압박하고 있음에도 경북 영덕 산불피해 현장과 경북 포항의 죽도시장을 방문해 민심을 살폈다.

김 후보는 이날 첫 일정으로 지난달 영남권에서 집중 발생한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석리 파계비마을과 영덕읍 노물리를 차례로 방문하며 피해 주민들을 위로했다. 현장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광열 영덕군수, 김성호 영덕군의회 의장 등 지역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 후보는 포항 죽도시장으로 이동하기

전 이철우 지사와 비공개 오찬을 하며 한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에 대한 조언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는 TK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7일에 부산으로 이동해 현장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김 후보는, 한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 압박이 강해지는 상황에서 자신이 당 내 경선을 통과한 최종 후보임을 강조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한편,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오전 관훈토론회에서 보수 진영 단일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후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과 오찬을 함께 하며 개헌연대 구축에 협력하기로 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이재명, 청년공약 발표… “공공기관 호봉 산정 시 軍 복무경력 반영”

군복무 크레딧, 복무기간 전체로 늘려
청년내일채움공제, 공공임대 확대
1인 여성가구 범죄예방시스템 등 강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모든 공공기관이 호봉을 산정할 때 군 복무경력을 반영하도록 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군 복무 경력이 모든 공공기관에서 정당하게 인정받도록, 의무적으로 호봉에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

는 내용을 골자로 한 청년 정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에서 군 복무기간을 호봉으로 인정하는 만큼, 승진 심사까지 해당 호봉을 반영하는 것은 이중 혜택이라며 이같은 ‘군 가산점’ 제도를 폐지한 바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민간을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 공공 부문에 군 복무기간을 호봉에 의무 반영하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해 논란이 일었다.

또 이 후보는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을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3월 국민연금 개혁안 합의 당시 군복무 크레딧을 전체 복무기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국민의힘과의 협상 끝에 12개월로 합의했다. 이에 상대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약한 2030 남성을 염두에 둔 공약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아울러 이 후보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며 “청년내일채움공제 시즌 2’(가칭 청년미래적금)를 도입하고 청

년 요구에 맞춰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상자산 현물 ETF를 도입하고, 통합감시시스템을 구축해 안전한 가상자산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거래 수수료 인하도 유도하겠다”고 했다.

청년층 주거와 관련해서는 “청년 맞춤형 공공분양과 고품질 공공임대를 대폭 늘려 주거 불안을 덜겠다”며 주택 공급 확대를 약속하고 “무주택 청년 가구의 월세 지원 대상을 넓히고, 월세 세액 공제도 확대하겠다”고 제시했다.

1인 여성 가구에 대한 범죄 예방 시스템 및 긴급대응체계 강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통한 전·월세 보증금 사기 가해자 처벌 강화를 약속했고, 청년 맞벌이 부부를 위한 맞춤형 돌봄 지원 확대도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청년에게 기회를 주는 사회는 성장하지만 청년을 방치한 사회는 퇴보한다”며 “청년이 마음껏 일하고 자산을 키우며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서예진 기자 syj@

국민의힘 ‘단일화’ 내홍… 김문수, 유세 일정 중단

김문수 “당 지도부, 정당한 후보를 강제로 끌어내리려고 시도하고 있어”
공식 후보 중심 화학적 결합 못해

국민의힘이 김문수 후보로 대선 주자를 결정했지만, 당을 ‘원팀’으로 만드는 건 요원해 보인다. 더군다나 김 후보는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와의 단일화를 두고 당과의 갈등을 빚고 있다. 결국 김 후보는 지방 유세 일정 중단을 전격 선언하고 서울로 귀환했다.

김문수 후보는 6일 경북 경주에서 유세 일정을 전격 중단하고 “당 지도부가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저를 강제로 끌어내리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서울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저녁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

표, 한덕수 예비후보도 TK(대구경북) 일정 중인 김 후보를 만나기로 했으나, 김 후보가 일정 중단을 선언함에 따라 불발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 내홍은 대선 후보 선거 이후 본격화하고 있다. 8명의 대선 후보들이 최종 후보 선정 이후 힘을 합치겠다고 했으나 이와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경선에서 떨어진 후 탈당했고, 오는 10일쯤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귀국은 6·3 대선 이후라고 한다. 이러면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 유세 등은 어려워진다. 홍 전 시장은 당을 떠난 이유로 “당이 나를 버렸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치른 20대 대선 경

선에 이어 이번에도 당원의 지지를 받지 못한 데 실망감, 경선 중 한덕수 예비후보와 단일화를 떠난 지도부에 대한 반발 등이 탈당의 이유로 풀이된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당 선거 대책위원회에 합류하지 않았다. 최종 경선이 끝난 직후인 지난 3일 김 후보는 한 전 대표를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에 내정했다. 한 전 대표는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지만, 선대위 참여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전날(5일) 비대위에서 선대위 인선을 완료하면서, 한 전 대표의 합류는 무산된 모양새다.

한동훈 전 대표는 “계엄을 막은 당대표”라는 당내 위치를 선점했고, 이로 인한 ‘배신자 프레임’도 경선 중 어느 정도 극복했다는 게 정치권의 평가다. 이

에 전날에도 당원 가입을 독려한 것이, 대선보다는 당권에 시선이 간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들과 마찬가지로 경선에서 김문수 후보와 맞붙었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선대위원장에 선임됐지만, 김 후보에게 12·3 비상계엄과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탄핵 반대·한덕수 단일화 강조를 경선 국면에서 강조해 온 김 후보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다.

이 때문에 안 의원이 선대위에 합류했음에도, 완전히 결합했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관측이다.

결국 국민의힘은 당의 공식 후보를 중심으로 화학적 결합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한덕수 예비후보와의 단일화를 두고 갈등하고 있다. 김 후보는 후보 확정 직후에 한 예비후보와의 단일화를 추진하는 당 지도부에 반감을 공공연히

드러내, 당 내홍이 심상치 않음을 드러냈다.

앞서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시키면서, 구(舊) 여권에서는 ‘대선이 해볼 만 해졌다’는 이야기도 나온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김 후보를 중심으로 뭉치지도 못하고, 한 예비후보와의 단일화에도 파열음을 내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내홍이 길어질수록 ‘이재명 대세론’은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메트로경제신문>에 “김문수 후보와 당 지도부 갈등이 수위를 넘었다”며 “만에 하나 친신만고 끝에 단일화를 하더라도 화학적 결합은 물 건너갔으니, 이재명 후보에게 압도적으로 패할 가능성만 높아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예진 기자